

## 물류표준화 추진 지원시책



농림부 유통정책과  
과장 이상용

### 1. 서언

농산물은 상품적 특성상 부패가 쉽고, 부피에 비해 가격이 낮아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며,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표준화·기계화·자동화가 미흡하며, 유통과정에서 감도 발생율이 높아 일반 공산품에 비해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기에 심한 경우 산지에서 포기당 200원에 불과한 배추가 소비자 슈퍼마켓에서 2,000원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유통구조에 대하여 생산자나 소비자들은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로 농산물은 그 특성상 유통비용이 많고 그 중에서도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농산물의 소비자구입총액('98)은 46조 1,47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생산자 출하액이 26조 6,892억원, 유통마진이 19조 4,584억원(물류비 6조 6천억원)으로 농업인이 생산하여 수취하는 금액이나 유통과정상의 유통비용 및 상인이윤들의 유통마진이 비슷한 실정이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 없이는 유통개혁을 이룰 수 없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II.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물류단계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출하주체인 생산자의 출하규모가 영세하고 공동출하가 미흡하며, 국가표준출하 규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산지의 규격출하 거점조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산지의 포장출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포장기술 미숙 등 산지의 포장·출하여건이 열악하여 특히 유통마진이 70%를 상회하는 엽근채류의 포장화율이 극히 저조하다. 또한 품질관리 및 소비자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수배송 부문에서도 서산에서 가락시장까지의 5톤 트럭당 수송비가 22만원 수준으로 상당부분이 수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물류정보망 부재로 인하여 공차율을 증가, 장시간 경매대기 등 문제점을 안고있다.

넷째, 하역비의 부담주체가 불투명 다수여서 하역노조의 교섭대상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수작업에 의한 하역으로 효율성이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거래의 투명화, 물류의 효율화 등 시책들은 기존의 유통관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포장화·규격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기피현상을 보여 포장규격화의 정책이 어렵다.

### III. 물류표준화를 위한 제도개선

#### 1. 농산물 표준규격의 전면개편, 표준바코드의 도입

물류표준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 규격의 표준화와 이를 실효성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정부는 농산물 표준규격을 지금까지의 표준농산물출하규격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반영하고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유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지의 포장규격은 주로 도매시장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대포장 규격위주의 수송용으로 제정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재·분 포장되는 등 유통비용의 추가발생을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등급규격 역시 품질표시기준이 모호하고 표시방법이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상품의 신뢰성, 투명성이 떨어져 통명·수의거래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유통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등급규격을 ① 과거 품목별 종합규격에서 품종별 규격으로 개편하여 규격을 다양화·차별화하고 ② 포장화·규격화율이 높은 품목중심으로 당도·색택 등 내부품질기준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포장규격을 ① 도매시장출하를 위한 수송용 규격(겉포장)과 소비자용(속포장) 규격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② 속박이 등을 근절하기 위한 소포장(5kg이하)규격 및 단충·개방형 규격을 확대하며, 표준규격농산물에 대하여는 표준바코드를 부착,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유통기반이 구축되도록 개편하였다.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개편하고 표준바코드를 도입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실명거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유통기반구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표준규격의 조기정착을 위해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업인과 이를 취급하는 유통인들에 대하여는 포장자재비 지원 등 각종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2.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물류표준화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을 개편된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하는 생산자조직에게 포장재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추진으로 '99년 기준 사과, 배 등 과실류는 포장화가 정착되어 포장화율이 96%이상이며, 무·배추 등 채소류의 포장화율의 경우도 과거 10%미만에서 25%로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도매시장 환경악화, 물류비 증가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무·배추 등 유통량은 많으나 포장화가 미흡한 품목 중심으로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포장화가 미흡한 품목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실현을 위하여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추가로 포장재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도매시장 반입억제시책 추진대상이었던 배추, 마늘과 무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우대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물류센터로 출하시 포장재비의 일부와 출하비용

을 지원하여 쓰레기발생억제를 통한 환경개선과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알타리무, 열무, 얼갈이배추, 파,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품목에 대하여는 산지에서 포장재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 ② 농산물을 규격출하하여 공동으로 계산하는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을 신고한 생산자 조직,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도 표준규격으로 출하시 포장재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 ③ 무, 배추, 마늘 3개 품목에 대하여는 2001년도 도매시장 우대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에 출하시 포장재비의 지원을 산지가 아닌 소비지의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를 통하여 포장재비의 일부와 출하비용을 지원키로 하였다.

### 3.물류기기 구입지원을 통한 물류표준화 추진

농림부에서는 '97년부터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과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등에 국가표준규격에 맞는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물류기기 구입비와 유통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고 하역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2001년도에는 농산물의 당도표시를 통한 품질등급향상을 위하여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추가로 지원대상 기기에 포함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4.디지털유통 추진으로 이음새 없는 물류체계 구축

농산물은 거래(상류)를 하기위해 상품(물류)이 따라 다니면서 도매시장 등에서 하역, 재선별, 상차 등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되어왔다.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는 거래는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물류는 일정규모가 되는 거래 주체간에 직거래 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디지털 농산물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으로 사이버도매시장(E-marketplace)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이버도매시장에서는 표준규격품만 취급하여 품질차별화를 모색, 실제로 실물을 보지 않고 물건을 거래하는 단점을 오히려 활용, 외국의 고품질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 N. 결 어

농산물 물류표준화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시설, 기기, 장비 등의 규격화, 표준화를 통해 농산물의 흐름을 원활히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모든 유통단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실효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격화, 표준화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를 개선하더라도 이를 사용해야할 유통주체들이 기존 거래관행을 고집한다면 투자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각 유통주체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